

다니엘서 - 번호 8

하나의 과정

Jeff Pippenger

2023-12-03

유다의 왕 여호야김 통치 제삼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그는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신전으로 가져가 그 그릇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다. 다니엘 1:1, 2.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사실상 같은 책이며, 다니엘서에 제시된 동일한 예언의 맥락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다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봉함이 풀리는 마지막 예언적 메시지를 나타낸다.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되었으나 관습과 전통에 의해 봉인되었던 진리들은 여전히 진리이며, 오늘날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다시 봉인이 풀리고 있고, 그 진리들은 이제 완전한 성취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에 다니엘서를 통해 올바르게 이해되었으나 관습과 전통에 의해 봉함되었던 진리들은 여전히 진리이며, 오늘날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다시 봉함이 풀리고 있고, 그 진리들이 이제 그 완전한 성취를 드러내고 있다.

다니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내는 두 권의 책 중 단지 첫 번째일 뿐이다.

여호야김은 개혁 운동에서 첫 번째 메시지에 권능이 부여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는 또한 언약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름이 바뀌는 일은 예언적으로 언약 관계의 시작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백성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 관계는 첫 번째 메시지에 권능이 부여될 때 시작된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10.

이름 변경이 언약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은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래의 이름이 사라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데에서 확립된다. 이 상징에 대한 다른 증거들도 있지만,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락으로, 미사엘의 이름은 메삭으로, 아사랴의 이름은 아벳느고로 바뀐다.

주께서 어떤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동시에 이전의 언약 백성은 제쳐두신다. 여호야김은 제쳐지는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때 선택되는 언약 백성을 대표한다. 사람들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킬 것인지 시험을 받는다. 그 시험은 먹는 행위로 상징된다.

아담과 하와는 먹는 행위로 시험에 실패했으며, 하나님이 처음으로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분은 만나로 그들을 시험하는 것으로 관계를 시작하셨다. 고대 이스라엘은

결국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의 시험이 단일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의 과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최초의 근거이자 첫 증언을 제공했다. 열 번째 시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앞으로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주께서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전의 언약 백성은 또한 지나쳐 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셨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말, 곧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에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시험 과정이었던 것이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시험 과정이 되었고, 그것은 하늘의 떡으로 표상되었다. 그것은 최초의 언약 시험 과정에서 만나로 예표되어 있었다.

그 시험 과정, 곧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이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떡에 대한 시험을 지적하셨다. 그분은 그 말씀을 제시하셨을 때 그의 사역의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잃으셨다. 그의 사역에서 벌어진 그 논쟁은 언약 시험 과정의 예증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고, 화이트 자매는 *Desire of Ages*에서 그 사건을 길게 논평하는데, 그 장의 제목은 "The Crisis in Galilee"이다. 갈릴리라는 이름은 '경첩' 또는 '전환점'을 뜻하며, 그 장에서 그녀는 제자들이 왜 그에게서 돌아섰는지를 설명한다. 그들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그의 증언을 올바른 예언적 방법론으로 적용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그들이 사탄이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적 이해 속에 주입해 놓은 예언적 개념의 관습과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오해는 그의 말씀을 영적으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된다고 그들이 여긴 구실을 제공해 주었다. 그녀는 또한 요한복음 6장(요 6:66)에서 예수님에게서 '돌아선'(갈릴리) 사람들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처음과 마지막 언약 시험 과정 모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이전의 언약 백성들은 동시에 제쳐두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 번의 단일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의 과정으로 시험하신다는 것도 알게 된다. 또한 그 시험 과정은 먹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상징된다. 우리는 또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그 시험이 먹을 두 종류의 음식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또한 무엇을 먹을지를 선택하는 일에는 제공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시험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영적 이스라엘의 말기, 곧 밀러운동의 시기에, 첫째 기별은 1840년 8월 11일에 능력을 입었다. 그곳에서 여호야김은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 딸들이 되어 가는 개신교인들을 대표한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내려와 그의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한 시험에 직면했다.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의 요구에 반역하고 그 후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개신교인들도 암흑시대에서 가지고 나온 전통과 관습에 근거하여 천사의 손에 있는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다.

1844년 봄까지 여호야김과 개신교도들에게 있어 시험 과정은 "전환점"에 이르렀고, 영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험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돌아섰고"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그 역사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입에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쓰게 되는 작은 책을 먹기를 선택한 밀러주의자들을 대표한다.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면, 시험이 먹는 행위로 상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네 가지 있다. 처음과 마지막의 표징을 모두 지닌 여러 예언적 증거도 있다. 만나 시험의 증거는 첫 번째 증거이며, 하늘의 떡의 시험은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첫 시험이면서 동시에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증거이다. 작은 책의 시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것은 광야의 교회로서 방랑하던 영적 이스라엘의 종결이며, 또한 최종적으로 명명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택함받은 자들의 처음이다. 밀러파는 하나님의 명명된 백성의 시작이었고, 그 백성은 개신교의 참된 뿌로 규정되어야 했다. 첫째 기별이 권능을 받을 때 시작되는 시험 과정에 대해 여러 증거가 있다.

그런 시험의 과정들에는 거의 모든 제자들이 돌아서는 '전환점'이 찾아온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증언 때에 온 이스라엘이 등을 돌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 갈릴리의 교회에서 대다수의 제자들이 돌아섰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므로, 시험 과정의 끝에서 표상되는 그 '전환점'은 시험 과정의 시작에서도 또한 드러난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처음 주어졌을 때, 곧바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때에 그분은 돌아서서 광야로 들어가셨다. 화이트 자매는 전환점이라는 상징을 매우 유익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국가들과 교회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시기들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여러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시대를 위한 빛이 주어진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적 진보가 있고, 거절하면 영적 쇠퇴와 파선이 뒤따른다.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 안에서, 과거에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 사탄의 세력들이 그들의 마지막 놀라운 활동을 벌일 때인 마지막 대쟁투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복음의 공세적인 사역을 밝혀 주셨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선과 악, 곧 어둠의 왕자 사탄과 생명의 왕자 그리스도 사이의 마지막 큰 투쟁을 불러올 세력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승리는 그의 보좌가 하늘에 굳게 세워져 있는 것만큼 확실하다. 바이블 에코, 1895년 8월 26일.

만나가 고대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 그 시대를 위한 빛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의 침례 때 그 시대를 위한 빛이 주어졌다. 1840년 8월 11일에도 그 시대를 위한 빛이 주어졌다. 이러한 전환점들 각각은 시험 과정의 시작을 알리며, 그 과정은 결국 또 다른 전환점에서 끝나는데, 그때 한때 언약의 백성이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더 이상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게 된다.

이 여러 시험 과정은 옛 언약의 백성을 위한 시험 과정이자 새 언약의 백성을 위한 시험 과정이므로, 시험 과정에는 두 가지 결론이 있다. 시험 과정의 결론, 곧 밀러파의 역사에서 개신교도들에게 최종 전환점은 1844년 봄이었다. 시험 과정의 결론(1844년 가을), 즉 밀러파 자체의 전환점은 옛 하나님의 백성의 전환점 이후에 찾아왔다.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시험의 과정은 그가 사역의 시작에 한 번, 그리고 사역의 끝에 다시 한 번 성전을 정화하신 것으로 드러난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을 그 신성모독적 더럽힘에서 정결케 하셨다.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행위들 가운데에는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하신 일이 있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경고하는 마지막 사업에서도 교회들에게 서로 구별되는 두 부르심이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러하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라'(요한계시록 14:8).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가운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 '내 백성아, 그 가운데서 나오라. 그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의 죄들이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요한계시록 18:4, 5). 가려 뽑은 기별 2권, 118쪽.

예언의 영의 저술들에서 그리스도의 두 차례 성전 정결의 시험 과정은 말라기 3장과 일치한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심으로, 죄의 더러움—곧 영혼을 부패시키는 세속적 욕망과 이기적 정욕과 악한 습관들—으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다. 말라기 3:1-3 인용. 시대의 소망, 161쪽.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은 여러 예언의 맥락들과 반복적으로 동일시되는 시험 과정을 나타낸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언급은 14만 4천의 정결을 표상한다.

"이 지구 역사의 말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갱신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14년 2월 26일.

14만 4천의 정결 과정은 다니엘서에서 처음 언급된다. 다니엘서는 인간의 시험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함께 나타내는 두 책 가운데 첫 번째 책이다. 14만 4천의 정결 과정은 또한 인침 과정으로도 표현된다. 2001년 9월 11일에 14만 4천의 정결·인침 과정에 대한 첫 기별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교회와 세상 모두에게 전환점이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의 영광으로 세상을 밝히는 천사가 그때 임하였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그 천사가 손에 먹을 것을 들고 있는 것으로는 묘사되지 않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다. 작은 책이 거기에 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line upon line"으로 표현한 방법론을 먹기로 선택한 이들이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줄에 줄을 더하는' 원칙에 따르면, 2001년 9월 11일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만나', '하늘의 떡', 그리고 '작은 책'으로 표상되어 온 '작은 책'을 또한 가지고 계셨다고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여호야김으로 표상된 옛 선민은 재림주의의 관습과 전통을 붙들기로 선택했고, 그때부터 일요일 법령에서 완결될 바벨론 포로 상태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릴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말한 것은, 그곳에서 층층이 솟아오르는 거대한 건물들을 바라보며, '주께서 땅을 심히 흔드시려고 일어나실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광경들이 전개될 것인가! 그때 요한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땅 위에 임할 것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뉴욕에 무슨 일이 임할지에 관하여 나는 특별한 빛을 받은 바 없고, 다만 언젠가 그곳의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뒤집고 또 뒤엎으심으로 무너질 것임을 알 뿐이다. 내게 주어진 빛으로 나는 파괴가 세상에 있음을 안다.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고, 그분의 크신 권능이 한 번만 닿아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광경들이 벌어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906년 7월 5일.

2001년 9월 11일, 하나님의 권능이 뒤집고 또 뒤엎으심으로 '뉴욕'의 '큰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빛이 온 땅을 가득 채웠으니,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의 역사에 전환점이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나라들과 교회의 역사에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들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여러 위기가 닥칠 때, 그때를 위한 빛이 주어진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적 진보가 있고, 거절하면 영적 쇠퇴와 난파가 뒤따른다. 바이블 예코, 1895년 8월 26일.

2001년 9월 11일,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빛이 임했을 때,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전진했고 그 빛을 거절한 자들은 영적으로 쇠퇴했으며, 반역의 여정을 시작하여 마침내 주일법이라는 최종 전환점으로 나아갔고, 거기에서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고백은 영원히 파선하게 된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갈릴리에서 그리스도를 떠나 더 이상 그와 동행하지 않은 자들은, 그분의 침례 때 처음 임했던 빛에서 돌아선 것이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 시험의 역사 가운데 첫째 기별이 능력을 입었다. 다니엘 1장에서는 첫째 기별이 능력을 입을 때의 역사 속에서 두 부류의 예배자들이 묘사된다. 여호야김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신실한 자들을 대표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셋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포위하였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왕이 내시 장관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곧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능하고 지식에 밝고 학문을 깨달은 자들로, 왕궁에 설 만한 자들이어야 했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려 하였다. 왕은 또 그들에게 날마다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배정하여, 그들을 세 해 동안 길러 그 기간이 끝나면 왕 앞에 서게 하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다. 내시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라에게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에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 달라고 내시 장관에게 구하였다. 다니엘 1:1-8.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유다 자손이었다. 그들은 거세되어 환관이 되었고, 그리하여 재림주의의 마지막 세대를 대표했다. 느부갓네살은 많은 고대의 왕들처럼, 네 명의 유다 청년들을 거세하여 그들이 노예로 섬기며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과 접촉할 때 왕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우려도 없애려 했다.

상징적으로 그것은 재림주의의 마지막 세대를 가리키는데, 이는 이 네 명 이후에는 유다의 계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넷은 전 세계를 상징하므로, 2001년 9월 11일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인정하는 전 세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마지막 세대를 의미한다.

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대상이다. 그들은 14만 4천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적 유산은 1863년에 그들의

선조들의 반역으로 시작되었다. 그 최초의 반역은 네 세대에 걸쳐 점증해 온 반역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 가려졌기 때문에 거의 알아보기 어렵다. 비록 알아보기 어렵지만, 다니엘이 결국 다니엘서 9장에서 그러했듯이, 그것은 반드시 보고 인정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직접 이어받은 반역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의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 지내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거부한 것이었다. 1863년,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 대한 밀러의 해석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배도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성경 해석 방법론으로 되돌아갔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경우, 그 반역은 히스기야 왕으로 표상되었다.

히스기야 왕은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주께 간구했고, 주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더해 주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결과 그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자, 유다의 점진적인 일곱 단계의 정복과 노예화의 시작을 알리는 왕인 므낫세를 낳았다. 1856년에 참 증인이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문을 두드리러 오셨지만, 그들은 자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살기를 선택했다. 1863년까지 그들은 "여리고"를 재건했고, 점증하는 반역을 시작했는데, 그 반역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2001년 9월 11일을 일요일법에서 끝나게 되는 영적 바벨론의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그들의 세 단계 여정의 시작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살게 해 달라는 그의 기도가 허락되었을 때 1863이 찾아왔다. 주께서는 그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는 표징을 주셨다. 하나님은 해를 움직이심으로 그 기도를 확증하셨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보았다. 그 후 바벨론 사람들은 해를 다스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히스기야 왕은 자아를 죽이기보다, 그 성전과 도성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성전과 도성을 영화롭게 하기를 선택했다.

그 반역으로 인해 그의 혈통에서 난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노예와 환관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졌다. 그 자녀들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으며, 세상 나라들과 교회의 역사에서 2001년 9월 11일을 전환점으로 인정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 가운데 영적인 마지막 세대를 대표한다. 그때는 십사만 사천을 시험하고 인치는 빛이 주어지는 때이다.

그 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더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고 주의 눈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매 히스기야가 크게 울더라. 이사야가 아직 가운데 뜰을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고치리니 사흘째 되는 날에 네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네 날수에 십오 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며,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오라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 위에 얹으매 그가 회복되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표징이 무엇이냐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얻은 표가 이러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그림자가 십 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니면 십 도 뒤로 물러가게 하라?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 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아니라, 그림자가 도리어 십 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내려갔던 그 그림자를 십 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니라. 그 때에 바벨론 왕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환대하여 자기 보물 창고,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귀한 향유와 온 무기고와 그의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으니, 그의 집과 그의 온 영토 안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후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내게 왔느냐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 곧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네 집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으며 내 보물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들이 쌓아 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남는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또 네게서 낱을 네 자손들 가운데서 그들이 데려가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은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날에 평안과 진리가 있으리니 그것이 선하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연못과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20:1-21.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는 왕위에 올랐을 때 열두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였다. 열왕기하 21:1

만일 히스기야 왕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냥 집안을 정돈한 뒤 죽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그에게는 15년이 더 주어졌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악한 므낫세가 태어났다. 1856년에 재림주의가 필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로의 전환을 받아들이고 집안을 정돈하며 윌리엄 밀러의 기초적 진리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마 결코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하였다”는 것이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 1장을 계속하겠습니다.